

지역 매 아 리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정읍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그 예로 2018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1월에 연납하면 52,000원이 할인된 46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0일에 연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5)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할인과 더불어 정기간 지방세 고지서 수신을 이메일 수신과 자동이체 신청 시 1장당 500원씩 최대 1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농가소득 안정 위해 쌀 직불금 영농기 이전 지급

부안군은 2018년산 쌀 직불금 군비 72억원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기 이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비 쌀 직불금은 관내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능기에 대해 소득보전 등을 위해 지급되며 소규모 농가(5ha 미만)에 대한 지급단가를 2% 상향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5347농가, 1만 3064ha 면적을 확정해 군비 7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되며 부안군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단가를 국비 대비 5ha 미만 경작자에겐 52%, 5ha 이상 경작자에겐 50%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초에 군비 쌀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쌀 재배농가들의 소득보전은 물론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5ha 미만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도 농업인들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자식농사 본격 지원 시작

고창군,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책가방 구입비 지원... 1인 10만원 상당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고창지역 아이들 둔 가정은 책가방 구입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고창군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올해부터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책가방구입비(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고창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전국가구 평균소

득 150%이하의 군민의 자녀와 (외)손자·손녀,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군민의 자녀와 (외)손자·손녀가 해당된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를 공약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책가방 지원을 골자로 한 ‘고창군 초

등학교 복지지원조례안(2018년 9월)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조례제정 및 본격 지원을 시작한 곳은 전북 도내 고창군이 유일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첫수도’ 위대한 고창의 정신을 간직한 인재 키워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체육회가 지난 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박진감과 다양한 볼거리로 즐거운 시간 선사 할 것”

정읍시-대한씨름협회, 설날장사 씨름대회 협약식 가져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가 오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정읍시에서 개최된다. 정읍시체육회는 지난 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사)대한씨름협회 김경기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대한씨름협회와 정읍시, 정읍시체육회, 정읍시씨름협회 등 각 기관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정읍시청 소속 단종

미인씨름단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동시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설날장사 씨름대회는 남자부 태백장사(80kg이하), 금강장사(90kg이하), 한라장사(105kg이하), 백두장사(140kg이하) 등 4체급 경기와 여자부 매화장사(60kg 이하), 국화장사(70kg 이하), 무궁화장사(80kg 이하) 등 3체급의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 둘째 날인 2월 2일부터는 KBS 및 KBSN 중계방송을 통해 안

방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대회를 통해 정읍

을 널리 알리고, 박진감과 다양한 볼거리로 관중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정읍시청 단종미인씨름단 신규영입선수 임용식 및 시무식이 개최됐다. 단종미인씨름단 관계자는 “한다복(용장급), 김기환(역사급), 고요한(용사급) 선수 등 3명의 유망주 선수 영입으로 기해년(己亥年) 힘찬 도약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선수들과 합심하여 단종미인씨름단의 위용을 떨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관내 장수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추진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80세 이상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고창군내 거주 노인들의 이·미용비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년 1회 6만원을 지원하며 고창군내 이·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시행 첫해 약 5300여명의 관내 노인들에게 3억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

군비 사업으로 이용자와 사업자의 편리성을 위해 카드결제 방식을 시도했다. 이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만의 창의적 복지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효자군수가 고창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지난 2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정읍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일반형일자리 사업과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복지일자리사업, 특화형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되어 정읍시에서는 올해 총 40명의 참여자가 올 연말까지 수행하게 된다.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2명(정일제 25명, 시간제 7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근무요령, 복무규정 안내와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참여자들은 근무처인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

지 시설 등에 배치되어 금년 말까지 복지 및 행정업무 보조, 부서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분야 사업추진을 위해 7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일근무제 25명과 시간근무제 7명을 선발하여 추진한다. 정일근무제는 근무지는 주5일 1일 8시간 근무와 월 174만5,150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시간근무제는 주5일 1일4시간 근무와 월87만2,58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할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며 사업의 확대 시행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스탬프로 관광하면 경품이 팡팡’

부안군, 잼버리&부안관광 스탬프 투어 실시

부안군은 이달부터 잼버리&부안관광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부안을 널리 알리고 부안의 손꼽히는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게 구성됐다.

잼버리 코스 3개소와 부안의 대표적 관광명소 30개소를 엄선해 총 33개 코스로 짜여졌으며 스탬프를 받을 때마다 포인트가 누적되고 누적되는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기프트콘(총 2만5000원 상당)이 발송된다.

스탬프 투어 미션장소별 인증방법은 GPS, 전자스탬프, 따라가기 코스로 구성해 스탬프 인증을 재미있고 알차게 꾸며주며 부안군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 개안동 벚꽃축제, 곰소전갈발효축제 기간

중에도 스탬프 인증을 운영해 축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염원을 담아 진행하는 잼버리 코스 3개소에 대한 스탬프 투어 인증을 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잼버리 인증서와 외판 등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모두 달성(100점)하면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다.

스탬프 투어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잼버리&부안관광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스탬프 투어를 즐기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부안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gift set options.